

“지민비조” 조국 돌풍, 총선 판세 흐른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무당층 조국혁신당으로 쏠려
당색 ‘광주의 하늘’로 정해
호남 지지율 가파른 상승세
“정권심판” 표심 자극에
민주당, 지역구 상승 효과 기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특히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조사보다 3.8%p 오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7%p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돌풍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입의전화결기(RDD)·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7.1%로 집계됐으며, 2024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또 KBS가 한국어시사에 의뢰해 지난 7~9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6%, 조국혁신당은 1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을 뛰어넘는 첫 조사결과다. 국민의힘 비례 정당 국민의미래는 32%였고,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이 각각 1%였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거세지면서 4·10 총선 지지도도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에게 맘을 열지 않던 무당층이 급속도로 조국혁신당으로 쏠리면서 여야의 총선 승패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범진보진영의 결집을 넘어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로 이어진다면, 총선 성적표에도 큰 변화가 따를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과거 선거에서 중도를 꺼왔던 진영의 승리가 빈번했던 만큼,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의 높은 득표율이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진보진영과 중도층의 조국혁신당 지지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만큼 지역구 투표에서도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선전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또한 조국 대표가 ‘광주의 하늘’을 당색으로 정하는 등 남다른 호남에 대한 애정을 보이면서, 호남에서도 조국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의 ‘정 치탄압’ 동정론이 이는 등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는 더욱 가파른 전망이다.

1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2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1.3%, 조국혁신당 24.6%, 더불어민주당연합 23.3%로 나타났다. 이어 개혁신당 5.0%, 새로운미래 3.4%, 녹색정의당 2.4% 기타 정당 3.9% 등이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연합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각각 8.1%p, 1.8%p 하락한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1.0%에서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 48.3%, 국민의힘 37.5%로 나타났다. 이어 개혁신당 4.1%, 새로운미래 2.4%, 녹색정의당 0.9%였다. ‘기타 다른 정당’ 2.9%, ‘없거나 투표를 안 하겠다’ 2.2%, ‘잘 모름’은 1.6%였다.

이 가운데 광주-전라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연합이 33%, 조국 신당이 26%, 국민의미래 7%, 녹색정의당 3%,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각각 2%로 나타났다. 비례 투표 정당 의향을 묻는 지역별 조사에서는 광주-전라지역에서 조국 신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 인천·경기 19%, 부산·울산·경남 17%, 서울 15% 순이었다. 대구·경북(9%)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은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비례 투표에선 42%가 더불어민주당연합에, 35%가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해 ‘교차 투표’의 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강조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종의 ‘지역구=민주당, 비례=조국혁신당’이라는 ‘선택적 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6.3%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기사의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못살겠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이해찬 전 대표(왼쪽),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함께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 사과’ ‘金 배’ ‘金 귤’

과실 물가 상승률 40.6% ... 전체 평균보다 37.5%p 높아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특히 사과-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은 40.6%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37.5%p 높았다.

이 격차는 과실 물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컸다. 기준 최대 격차는 1991년 5월의 37.2%포인트였다.

이는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이 40.6%로 1991년 9월(43.7%)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사과가 이상기온으로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대체제인 다른 과일 가격도 상승하며 각종 기록이 쏟아졌다.

지난달 사과 물가 상승률은 71.0%로 1999년 3월(77.6%)과 작년 10월(74.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70%를 넘었다. 사과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는 67.8%포인트로 역

시 역대 세 번째로 컸다.

배 물가 상승률은 61.1%로 1999년 9월(65.5%) 이후 24년 5개월 만의 최고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격차는 58.0%포인트 벌어져 1999년 9월(64.7%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특히 귤값 상승률은 78.1%로 2017년 9월(83.9%)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박(51.4%), 딸기(23.3%), 체리(28.0%) 등 물가도 고공행진 중이다.

과일 가격 강세는 올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金)사과’로 불리는 사과는 마땅한 대체 상품이 없는 데다 수입이 어려워 당분간 가격 부담이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의대 교수 사직 결의, 전남대·조선대 주목 ▶6면

KIA, 류현진 상대 40이닝 1득점 ▶18면

화엄매·선암매·고불매···톡톡 ‘탐매 여행’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교통사고, 자살, 산업재해

3대 사망사고 ZERO!

생활 속 작은 관심과 기본 안전수칙 실천으로
더 안전한 광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안전실천, 이것만은 꼭!

- | 교통사고 | 자살 | 산업재해 |
|------------|-------|------------|
| 우회전 일시정지 | 안부 묻고 | 보호구 착용 |
| 교통신호 지키기 | 들어주고 | 작업 전, 안전점검 |
| 음주운전 하지 않기 | 관심 갖기 | 작업절차 지키기 |

